

신이식 환자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있어 라미부딘의 유용성

정영옥, 이영상, 양원석, 박정식, 박수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내과학교실

배경. 라미부딘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의 강한 억제제로서 신이식 환자에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사용했을 때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이에 신이식 환자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서 라미부딘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서울중앙병원에서 신이식을 시행한 환자 중 6명(남자, 연령; 19-44세)이 라미부딘을 사용하였다. 2명은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라미부딘을 사용하면서 신이식을 시행하였고 4명은 이식 전 B형 간염 보유자 상태였으나 이식 후 활동성 B형 간염으로 라미부딘을 시작하였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은 모든 환자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용량은 하루 100-150mg을 복용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간효소치와 바이러스 표식자를 추적하였다.

결과. 라미부딘 사용기간은 중앙값 8개월(범위; 4-14개월)이었고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라미부딘 사용 후 중앙값 6주(범위; 3-56주)후 HBV DNA가 음성화 되었고 중앙값 11주(범위; 2-18주)후 ALT가 정상화 되었다. HBsAg의 음성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HBeAg은 치료 전 양성이었던 3명의 환자중 1명에서 음성화 되었다. 모든 환자는 표준 면역억제요법을 받았으며 라미부딘 복용 후 싸이클로스포린 농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1명에서 급성거부반응이 진단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치료되었고 모든 환자에서 이식신기능은 정상이었다.

결론. 라미부딘은 신이식 환자에서의 활동성 B형 간염의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로 생각된다.

투석환자에서의 G형 간염의 발생빈도와 임상적 의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병수, 정 재성, 박 주현, 김 영옥, 신 영신, 박 철휘, 김 용수, 방 병기

G형 간염은 발생빈도, 전파경로 및 임상적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투석환자에서의 발생빈도도 보고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저자들은 가톨릭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 혈액 및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각각 78명과 79명을 대상으로 HGV RNA, anti-HCV Ab 및 HBsAg을 측정하였고 간기능검사, 수혈력 및 투석기간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78명의 혈액투석환자에서의 HGV RNA, HBsAg 및 anti-HCV Ab 검출율은 각각 6.4%(5/78), 9%(7/78), 20.5%(16/78)이었다.
2. 79명의 복막투석환자에서의 HGV RNA, HBsAg 및 anti-HCV Ab 검출율은 각각 3.8%(3/79), 6.4%(5/79), 7.8%(6/79)이었다.
3. Anti-HCV Ab 양성율의 빈도는 혈액투석환자에서 의미있게 높았으나($p < 0.05$), HGV RNA와 HBsAg 양성율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환자간에 차이가 없었다.
4. HGV RNA 양성인 7명의 혈액투석환자 중 1명은 B형간염 바이러스와 2명은 C형 간염 바이러스와 동시감염되어 있었고 C형 간염 바이러스와 동시감염된 환자 중 2명은 비정상 간기능 수치를 보였다.
5. 복막투석환자 중 HGV RNA 양성을 보인 3명의 환자는 정상 간기능 소견을 보였으며, 이 중 1명은 B형 간염바이러스와 동시감염되어 있었다.
6.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군 간에는 HGV RNA 양성율은 차이가 없었으며, HGV RNA 양성 및 음성군간에도 투석방법, 투석기간과 수혈력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환자에서의 HGV RNA 양성율은 각각 6.4%, 3.8%이었으며 이상의 소견에서 G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 독자적으로 의미있는 간염을 유발시키지는 않았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와의 동시감염이 갖는 임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